

마을기금
전문가 과정④ (2013.7.30)

공동체기금 조성 사례 및 이슈 점검

마을기금 설립 3가지 접근전략

1



자체 기금 조성

2



지.자.체 협력

3



기존 금융기관 활용

자체 기금 조성

- ✓ 자조금융 기반 확립
 - ✓ Bottom-up 방식의 가장 이상적인 전략
 - ✓ 구성단위(Unit)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
 - ✓ 자원 빈곤으로 인한 규모화의 한계 큼
 - ✓ 공동유대(Common Bond)의 존재 유무가 관건임
-
- 자치구 내에 풀뿌리 기금을 모을 잠재력이 존재하는가?
 -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?
 - 자치구를 기금 조성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?
 - 자치구 영역을 넘는 연대기금을 조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?

접근전략(I) 자체기금 조성



- 지역재단 설립
- 자조기금 조성
- 공동체회사 설립
- 지역금융기관 설립

▣ 자원조달, 공동유대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

- ~~- 자원조달Root 존재 : 자조기금, 공동체회사~~
 - ~~- 자원조달Root 부재 : 지역재단, 지역금융기관~~
-
- ~~- 공동유대Root 존재 : 자조기금, 공동체회사~~
 - ~~- 공동유대Root 부재 : 지역재단, 지역금융기관~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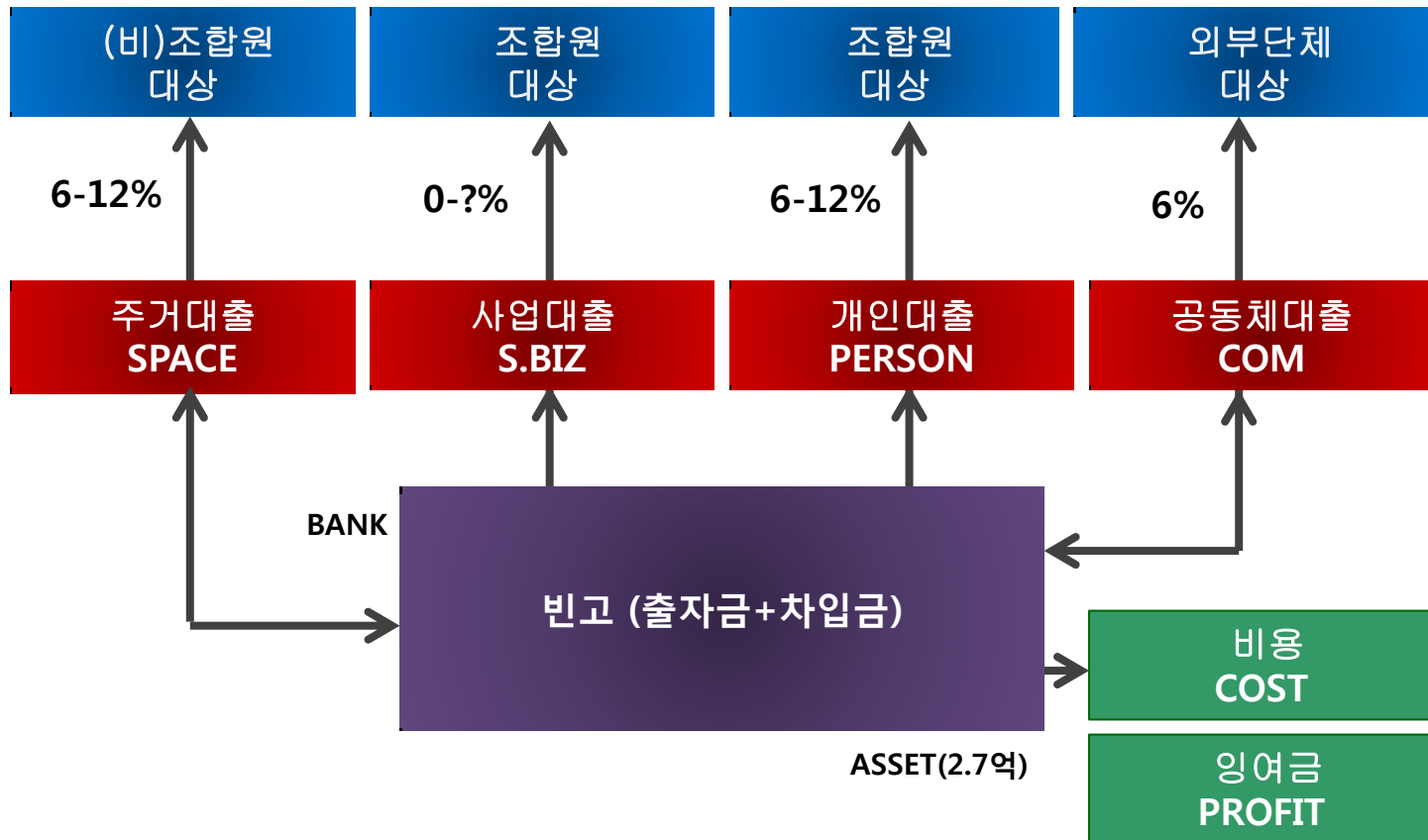
비영리재단법인



- ✓ 근거 : 민법 제 32조 (비영리법인 규정)
- ✓ 실체 : 재산의 집단
- ✓ 기본요소 : 설립자의 의지와 기본재산
- ✓ 업무소관 :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

✓ 비영리 재단법인이 갖는 의의 및 장점

-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형태
- 비과세 혜택 (비영리법인 과세특례조항)
- 용자행위 가능 (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, 예외조항)
- 투자행위 자격획득 용이 (상.중법 49조, 공익기여도가 높은 법인)
- (공동체)채권 발행 가능성 확보 (장학재단 등 특수목적법인 사례)



- @ 용자 중심 : 대부 종류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
- @ 잉여금 사용처 (배분 기준 존재) : 지구분담금, 배당금, 적립금
- @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(?)

@ Purchasing Group : Anglia Farmers Limited



- ✓ 2003년 설립
- ✓ 영국 최대 농업구매그룹 계열회사
- ✓ 자산규모 140만 파운드(약 24억 원)
- ✓ 조합원 1,500명 + 준 조합원 700명

- ✓ 조합원 간 내부융자 (Peer to Peer Lending)
- ✓ 관계금융에 기초한 단기자금 융자사업
 - Anglia Farmers Coop이 자금중개자 역할 담당
 - 최대 1년 이내의 단기융자만 취급 (연리 6%)
 - 금융기관보다 질 좋은 고객(조합원)정보 보유
(신.협을 설립하지 않고도 직접금융을 할 수 있는 비결)
- ✓ 공동체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금융시스템 구축

공동채권 (Community Bond)



- ✓ Community Bond
- ✓ 확정금리 부 금융상품
- ✓ 지방정부의 (원금) 지급 보증
- ✓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됨





- ✓ Community Bond Corporations
- ✓ 공동채 채권 전문 운영기관 설립
- ✓ 지역 기반 금융기관에게 위탁 가능
(신용협동조합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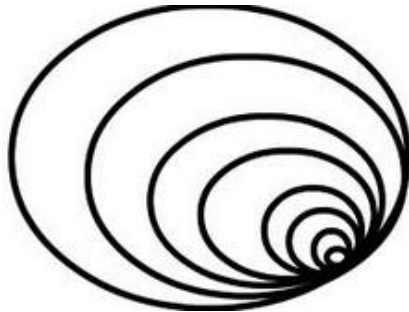
- ✓ 신용협동조합 vs 공동채 채권
 - 채권 프로그램 설계 및 홍보 협력 (Estevan CU)
 - 채권 직접구매 (Prince Albert CU)
 - 수수료 받지 않고 무상으로 채권 판매 (Tisdale CU)
 - 채권 발행기관으로 활동 (Watrous CU)
 - 채권 구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저리 용자 (Various CU)

이슈① 모집방법



- ✓ 지역주민 or 모임의 자발적 출연
- ✓ 기 존재하는 풀뿌리 기금의 활용
- ✓ (공동체)채권 발행 등 금융수단 동원

- ✓ 모집 방법은 구성 단위, 자원 보유수준에 따라 달라짐
 - 마을 단위의 공동체 기금은 자발적 연대의 형태로 조직화
 - 자치구 단위의 지역 기금은 Bottom-up 방식으로 성립 불가
 - 광역시 단위의 발전 기금은 외부 자원(정부, 기업) 결합이 필요
 - 풀뿌리 기금의 통합 운영 방식은 기계적 사고 (현실성 없음)
- 결론적으로, 마을 단위 풀뿌리기금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과 자치구 차원의 목적의식적 기금 조성을 병행해 가야 함



- ✓ 마을 단위(풀뿌리 기금) : 민 중심
- ✓ 자치구 단위(지역 기금) : 민 중심+관 결합
- ✓ 광역시 단위(발전 기금) : 관 중심+민 결합

- ✓ 구성 단위에 따라 기금 조성 및 운영방법이 달라짐
 - 마을 단위 기금 조성은 전형적인 Bottom-up 방식임
 - 자치구 단위 기금 조성은 민의 주도성 확보가 중요함
 - 광역시 단위 기금 조성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풀어가야 함
 - 서울의 경우, 기초·광역 공히 관 중심+민 결합 방식이 될 가능성 큼
- 결론적으로, 자치구 단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기금 조성을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임

이슈③ 자금수요



- ✓ 마을 단위(풀뿌리 기금) : 마을 사업
- ✓ 자치구 단위(지역 기금) : 공동의제 사업
- ✓ 광역시 단위(발전 기금) : 관 주도 사업

- ✓ 구성 단위에 따라 자금 수요(지원 대상)가 달라짐
 - 마을 단위는 참여주체들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
 - 자치구 단위는 주민복지,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이 주가 됨
 - 광역시 단위는 인프라 조성 등 사회투자적 성격이 강함
 - 서울의 경우, 자치구 단위 사업의 기금 효용가치가 가장 높을 것임
- 결론적으로, 사회적경제 진영 활성화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자금 투입을 핵심 수요처로 설정해가야 함

지.자.체 협력

- ✓ 거버넌스 기반 조성
 - ✓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연대 방식
 - ✓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
 - ✓ 행정력의 관성에 끌려 다닐 개연성 큼
 - ✓ 사회경제 등 시민사회 영역의 힘 보유가 관건임
-
-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
 - 사회투자기금의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
 - 정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?
 - 시민사회 영역의 힘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

접근전략(II) 지.자.체 협력



- 공공기금 설립
- 매칭펀드 조성
- 지역발전기금 조성
- 지역투자재단 설립

▣ 민관협력 지수, 제도적 한계에 따라 구분

- ~~협력지수 높음 (시민주도) : 지역투자재단, 지역발전기금~~
 - 협력지수 낮음 (정부주도) : 공공기금, 매칭펀드
-
- ~~법·제도적 환경 좋음 : 지역발전기금, 지역투자재단~~
 - 법·제도적 환경 나쁨 : 공공기금, 매칭펀드

다양한 발전기금 조성

@ 지역금융기관 : CLF, CU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말함



- ✓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
- ✓ 신.협 등 지역금융기관들과 협조
- ✓ 거버넌스 필
- ✓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기금 구조화

- ✓ 지역경제 발전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목표 가짐
 - 지역발전예금 (Community Development Deposits)
 - 지역투자기금 (Community Investment Fund)
 - 지역발전융자 (Community Development Loans)
 - 지역발전투자 (Community Development Shares)
(지역개발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지분인수)

제4조, 기금의 용도

- ✓ 사회적기업, 사회적 벤처기업, 사회적 활동가
- ✓ 사회 환경 문화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투자사업
- ✓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
- ✓ 소셜 커뮤니티, 마을기업, 공동체기업 및 마을공동체
- ✓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- ✓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

- 사업, 사업체(법인) 및 개인에게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
- 기금 위탁을 받은 기관의 필요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
-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, 사실상 제한규정 없음

제9조,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

✓ 주거환경 개선 등 10개 항목에 대한 규정

- 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개정
(10항, 기타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)

제23조, 종합지원센터 기능

✓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

- 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없음
(조례 개정 전에는 기금 운영주체 활동 불가)

기금조성

@ 민간 : 금융기관, 기업, 제3섹터, 주민

- ✓ 민간(기부, 협찬) + 공공(재정 투입, 시 투자기금 활용)
- ✓ 매칭 방식 : 민간 3억(선 투자) + 공공, 민간조달 30억

기금관리

- ✓ 지역 재단법인 설립(2013 하반기), 위탁 관리
- ✓ 조직 구성 및 운영 : 협동조합 방식 (출연자 참여)

지원대상

- ✓ 사회적경제 조직 (사회적기업, 사회적 배려기업, 소셜벤처 등)
- ✓ 소셜 커뮤니티 (마을기업, 마을공동체기업, 협동조합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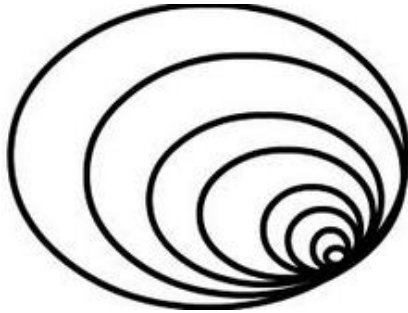
지역금융 활성화

- ✓ 지역 금융기관 이용 구민운동 (신협, 마을금고 출자 및 통장 갖기)
- ✓ 구, 주거래 은행 전환 (금융거래기관 변경)

지역금융기관 사회참여

- ✓ 구, 사회투자기금 출연 유도 (기관별 3,000만원)
- ✓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(무이자 용자 등, 투자기금 연계)
- S시 자치구 차원, 첫 실험으로서의 의의
- 관 주도의 기금운영 및 집행 우려 (조례 근거 및 내용 점검)
- 기금 운영수단 및 방법 점검 (용자 일변도의 지원정책 지양)
-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 상 (법적, 제도적)제약요인 극복 필요

이슈① 협력단위



- ✓ 마을 단위 : 주민자치센터
- ✓ 자치구 단위 : 개별 구 or 구간 연대
- ✓ 광역시 단위 : 서울시

- ✓ 구성 단위에 따라 협력 방식 및 운영형태가 달라짐
 - 마을 단위의 협력은 자치위원회의 영향력 정도가 관건임
 - 자치구 단위의 협력은 조례 및 운영위원회 규정이 중요함
 - 광역시 단위의 협력은 관 주도 방식의 견제가 요구됨(시 의회 활용)
 - 서울의 경우, 기초·광역 모두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
- 결론적으로, 자치구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가는 방식이 아니라
광역 차원의 공동대응전략을 수립, 함께 보조를 맞추어가야 함



- ✓ 마을 단위 : 자치위원회 활동 강화
- ✓ 자치구 단위 : 운영위원회 활성화
- ✓ 광역시 단위 : 능동적 사업참여

- ✓ 협업 방식은 구성 단위 별 협력 기제에 따라 달라짐
 - 마을 단위는 자치위원회 활동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함이 중요
 - 자치구 단위는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함
 - 광역시 단위는 각 마을 주체들간의 공동협력 대응이 필요함
 - 민.관 협력체계 상의 형식과 내용의 분리(사실상 갑-을 관계) 경계

■ 결론적으로, 어떤 협력기제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결집된 역량이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임

이슈③ 자금수요



- ✓ 마을 단위 : 자치구 단위 결정사업
- ✓ 자치구 단위 : 구별 핵심의제 사업
- ✓ 광역시 단위 : 시정 중점 전략사업

- ✓ 구성 단위에 따라 자금 수요(지원 대상)가 달라짐
 - 마을 단위는 자치구 사업 방향 및 내용에 귀속됨
 - 자치구 단위는 기금 조성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짐
 - 광역시 단위는 시정 상의 전략적 우선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짐
 - 서울의 경우, 기초. 광역 차원의 연관성 있는 사업의제 설정이 필요
- 결론적으로, 사회적경제 진영 활성화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복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

기존 금융기관 활용

- ✓ 기존 금융인프라 최대 활용
 - ✓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전략
 - ✓ 제도, 법률 개혁 등 문제제기 병행
 - ✓ 제도권 금융의 한계로 인해 효과가 약할 개연성 존재
 - ✓ 우호적 금융기관과의 연대 협력이 관건임
-
- 신탁, 마을금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?
 - 금융기관의 우호적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
 - 기반 조성을 위해 단체장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?
 - 제도, 법률 개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?

접근전략(Ⅲ) 기존 금융기관 활용



- 우대서비스 협약 체결
- 공동 협력사업 추진
- 특별상품 개발
- 협력기금 조성

▣ 금융기관 협력 정도, 제도적 한계에 따라 구분

- ~~협력에 우호적 : 특별상품, 협력기금~~
 - 협력에 비우호적 : 우대 서비스, 공동사업
-
- ~~법·제도적 환경 좋음 : 특별상품, 협력기금~~
 - 법·제도적 환경 나쁨 : 우대 서비스, 공동사업

크리스마스 펀드



- ✓ 일명 Christmas Cash로 불림
- ✓ 지역 신용협동조합 중심
- ✓ 성탄절 시즌을 위한 특별기금
- ✓ 매력적인 조건의 융자 제공

- ✓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표임
(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권장)
- ✓ 캐나다 지역 신용협동조합들의 전통적인 서비스
(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 신청 받음)
- ✓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별 금융서비스 제공
(펀드 운영수익금은 전액 공공사업에 기부함)

개인개발계정 (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)



- ✓ 개인 자산형성 지원사업
- ✓ 1994년 공공부문 도입 시초
- ✓ 취약계층 자립자활 촉진 프로그램
- ✓ 1:1 매칭방식 자금 지원(Grant)

@ CDCU :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

- ✓ CDCU(지역개발 신.협)의 대표적 상품 중 하나
- ✓ 주택구입, 개인창업, 교육훈련 목적으로 활용
- ✓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자원 조달
(정부 지원, 지역사회 민간 기부, 자체 수익금 충당)
- ✓ 한국, 2009년 도입 (보건복지부, 서울시 등)

@ 서울시 : 희망플러스 통장사업

신디케이트 론 (Syndicate Loan)

SINCE 197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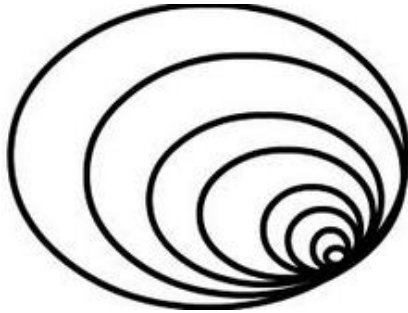


- ✓ 자선신탁재단 GT 설립 (1961)
- ✓ 신용보증협동조합 GKG 설립 (1967)
- ✓ 협동조합은행 GLS 설립 (1974)
- ✓ GLS 은행재단 GBS 설립 (2008)

@ Dottonfelder Hof (1968)

- ✓ 친환경 농산물 생산업자 vs 소비자 vs 금융기관
- ✓ 소비자들에게 1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액대출
- ✓ 대출받은 돈을 생산업자에게 일괄 발송
(1년간의 먹을 거리에 대한 선불 개념)
- ✓ 생산업자(자금난 해소), 소비자(생산자 보호), 금융기관
(재무위험 분산)의 공생모델

이슈① 협력단위



- ✓ 마을 단위 : 단위 조합(금고,지점)
- ✓ 자치구 단위 : 구 내, 복수의 기관
- ✓ 광역시 단위 : 협의체(연합회)

- ✓ 협력 단위에 따라 접촉 대상 및 사업 범위가 달라짐
 - 마을 단위의 협력은 단위 조합(금고,지점)과의 <1:1> 대응 방식
 - 자치구 단위의 협력은 구에 존재하는 다수와의 <1:다> 대응 방식
 - 광역시 차원의 협력은 협의체(ex, 서울시 신협 협의회)와 대응
 - 자치구 및 광역시 차원 대응 시 (지방)정부 중재(참여) 필수적
- 서울의 경우, 각 단위 별 대응방식이 모두 유효하며 따라서 반드시 순차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는 없음

이슈② 대상선정



- ✓ 장기적 관점 견지
- ✓ 일방적인 지원 방식 지양
- ✓ 협력 수준에 따른 단계적 접근 필요

✓ 지역 내 금융기관 현황 및 생태계 파악 必

- 흑묘백묘 (단, 상대적으로 지역 신.협이 상대적 장점 많음)
- 개별 금융기관의 법,제도적 특징 및 차이점 사전 인지
- (지방)정부 적극 활용 (중재 혹은 참여)
- 단수보다는 복수가 좋음 (협동조합 1, 마을금고 1/ 상호경쟁 유도)

▣ 결론적으로,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 속에서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



- ✓ Step by Step (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)
- ✓ Give & Take (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)
- ✓ Respect for each other (상호존중 및 호혜)

✓ 협력(신뢰성) 정도에 따른 협력 수위 조절이 필요

- 낮은 수준 : 상호 교류(정기 회합, 교육 등), 공간 제공
- 중간 수준 : 협력 중진방안 논의(고객 유치 협력 vs 우대 서비스 신설)
- 높은 수준 : 공동사업 전개(특별상품 개발, 각종 할인혜택 등)
- 동원 가능한 사회적 자원(사람, 자본)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

■ 결론적으로, 개별 금융기관의 성격 및 친밀도보다는 비즈니스 원리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함

감사합니다



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